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DROWNING

가제 : 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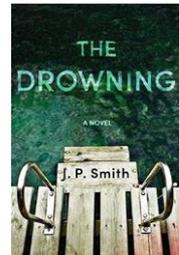
저자 : J.P. Smith

출판사: Sourcebooks Landmark

발행일: 2019년 1월 8일

분량 : 336쪽

장르 : 미스터리/스릴러



#### \* 독일 판권 계약

\* “초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과 주인공이 세운 가증스러운 방어선이 무너지는 과정을 균형 있게 잡아냈다. 날카롭고 명료한 문장은 덩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여름이 되면 도시와 지긋지긋한 학교 공부를 떠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탐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드는 워킬로 캠프장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흉흉한 소문이 하나 있다. 캠프장이 처음 문을 연 1937년부터 7년마다 어린 소년이 한 명씩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낯선 캠프장에서 아직 적응 중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은 시각, 여섯 명의 지도교사들은 휘둥그런 눈동자를 둘러보며 그 이야기를 전해준다. 존 오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의문의 납치범이 멀리서 캠프에 온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캠프 프로그램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늘 덩그러니 혼자 있는 아이를 골라서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간다는 것이다. 캠프라면 질색이었지만 엄마아빠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워킬로 캠프장에 온 조이 프록터도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 몇 주 뒤, 조이가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5주라는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가고, 캠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조이는 가장 두려워하는 수업을 들으러 호숫가로 갔다. 바로 알렉스 메이슨이라는 대학생 형이 지도교사를 맡은 수영 시간이었다. 다들 ‘캠프 워킬로’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 혼자서만 온갖 튀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소매는 보란 듯이 일부러 뜯어낸 요란한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알렉스는 어린이 캠프 교사를 처음 맡아서 그런지 아이들 다루는 솜씨가 영 어설프다. 특히 조이처럼 물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그래서 수영을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 자신만만하고 실패라곤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인 그는 자신에게 수영을 배운 아이들은 전부 수영을

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래서 조이는 유일하고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스티브는 수업 시간에 탄정을 피우고 하라는 연습도 하지 않으려 하는 조이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 결국 그는 수업이 끝나자 조이를 뗏목에 태우고 호수 한가운데로 데려갔다. 알렉스는 물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수영을 해서 혼자 힘으로 돌아오던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뗏목 위에 그대로 앉아서 벌벌 떨던가 네가 선택하라는 모진 말만 남긴 채 유유히 헤엄쳐서 혼자 물으로 돌아왔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조이가 수영을 시도라도 하리라 생각했을 뿐, 그대로 방치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알렉스는 다시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해가 지고 저녁식사 시간에 조이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지도교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조이를 데리고 호수에 간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 알렉스는 태연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호숫가로 갔지만, 플래시 불빛에는 텅 빈 뗏목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이가 사라진 것이다.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지만 조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잠수부들의 숭한 노력에도 물에 빠진 시신이나 조이의 물건 조차 전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은 워킬로 캠프장에 존 오티스가 정말로 7년 만에 돌아와 조이를 데려갔다고 수군댔다. 알렉스는 조용히 안도하며, 자신의 실수가 이대로 묻히기만을 기도했다. 아무런 단서도, 목격자도 없이 조이 실종사건은 미제로 남고 알렉스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2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알렉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조이 프록터의 이름이 난데없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맨해튼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알렉스는 10억이 넘는 대저택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딸과 함께 그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잡지나 방송에도 자주 소개되어 연예인마냥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은 유명인사가 된 알렉스는 새로 시작한 브루클린 개발사업을 준비하면서 꼭 매입하고 싶은 집을 하나 발견한다. 집주인에게 열쇠를 전해 받아 내부를 확인하러 간 날, 그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죽히 수십 년은 된 듯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집안을 둘러보다가 출동 나온 경찰들과 맞닥뜨린다. 누가 침입했다며 집주인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알렉스의 등 뒤로, 빨간 페인트로 벽에 휘갈겨놓은 ‘조이’라는 이름이 발견된다. 수영장 바닥에서 ‘나를 기억해’라는 문구까지 보고 나서야, 알렉스는 21년 전 뗏목 위에 두고 온 조이를 떠올린다. 조이가 살아 있었고, 지금 복수를 시작한 것일까?

그 때부터 알렉스는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명예, 가족을 조이가 빼앗으려 한다는 걱정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 다시 워킬로 캠프장에 찾아갔다가 의문의 목격자와 만나면서 그 불안은 공포로 바뀌고 그는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향하고 만다. 뜻밖의 결말이 드러나기까지, 겹겹이 치밀하게 얽힌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씩 펼쳐지는 신선한 스릴러 소설이다.

#### <저자 소개>

J.P. 스미스(J.P. Smith)는 뉴욕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작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각본가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Body and Soul』, 『The Blue Hour』 등 7개 작품을 펴냈다. 2014년에는 Academy Nicholl Fellowship Semi-finalist로 선정된 바 있다.

제목 : THE HUNTING PARTY

가제 : 사냥 파티

저자 : Lucy Foley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1월 2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심리/범죄 소설



\* 독일, 이탈리아 판권 계약 / 베스트셀러 <THE BOOK OF LOST AND FOUND> 저자의 신작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5위권 진입

\* “시골 저택에서 벌어지는 전통적인 살인사건 이야기지만 멋지고 훌륭하다” - 「타임」 지

\* “작가는 한 사람의 특징을 좌우하는 작고 사소한 부분에 주목한다. 오랜 친구가 항상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영리한 긴장감과 함께 드러난다” - 「옵저버」

10여년 전 대학생활을 함께 보낸 여덟 명의 친구들이 스코틀랜드로 향한다. 매년 모두 모여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을 이번 해는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파티를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은 이 오랜 친구들 중 한 명과 결혼하면서 최근에 일원이 된 엠마. 이렇게 아홉 명의 성인과 생후 6개월 된 아기 한 명이 다 모인 12월 30일만 해도 이 연말연시 파티는 어느 때처럼 실컷 먹고, 마시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흘러갈 줄 알았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은 결국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다. 폭설로 오가는 길이 모두 끊기고 모두가 고립된 곳에서 사라진 친구는 결국 시체로 발견되고, 살인자가 그들 중에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굳은 미소 뒤에 오랜 세월 억눌렀던 증오와 분노의 실체도 드러난다. 전통적인 밀실살인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살해된 희생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양한 인물의 시선에서 파티가 열린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긴장감을 더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다.

원래 사유지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로크 코린’ 저택은 연말에만 딱 네 팀 정도만 손님을 받는 곳으로 유명하다. 엠마는 무려 1년 전에 예약이 열리자마자 자신을 포함한 9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을 잡는데 성공했다. 옥스포드 재학 시절부터 거의 모든 남학생들이 한 번 사귀고 싶어할 만큼 인기가 많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던 미란다, 시선을 사로 잡는 준수한 외모로 미란다가 차지한 줄리엔, 런던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바쁘게 살고 있는 케이티, 동성 커플이 된 닉과 보, 그리고 둘째 가라면 서러운 파티 광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뒤 어쩔 수 없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한 사미라와 가일스 부부까지, 자신을 제외한 여덟 명은 졸업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모임을 이어온 끈끈한 사이였기에 엠마는 마크와 결혼한 직후부터 그 거리감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로크 포린 저택에서의 파티도 그런 야심과 정성을 모두 쏟아서 준비했다. 트뤼플과 푸아그라 등 고급스러운 식재료를 공수한 건 물론이고, 구하기 힘든 와인과 샴페인도 완벽하게 갖춘 엠마는 이번 해 모임을 통해 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다. 그러나 파티는 살인으로 얼룩지고 만다.

과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지낼 수 없게 된 헤더에게 스코틀랜드에서도 인적이 가장 드문 로크 코린 저택은 딱 맞는 일터였다. 일년 중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인원에게만 단 며칠간 숙박 기회가 주어지는 곳인 만큼 일이 특별히 힘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전혀 없는 폭설로 5만 에이커에 달하는 인근 지대 전체가 섬처럼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해군으로 복무하다 PTSD에 시달려 온 사냥터 관리인, 더그와 함께 실종자를 찾아 나선 헤더는 1월 2일이 되어서야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된다. 저택 근처의 폭포 아래에서 사라진 손님이 발견된 것이다. 이미 숨이 끊어진 실종자는 결코 눈이나 얼음 때문에 사고로 죽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누군가 작정하고 살해한 흔적이 뚜렷이 남았기 때문이다. 구급차도, 경찰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눈에 파묻힌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범인은 무조건 저택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크 코린에 머문 사람은 9명의 동창들, 기상이 나빠지면서 헤더가 예정에 없이 받아준 아이슬란드 배낭여행객 두 명, 그리고 헤더와 더그가 전부였다. 누가, 무슨 이유로 10년을 해마다 함께 새해를 맞이해온 친구를 죽였을까?

소설은 미란다와 케이티, 헤더와 더그, 그리고 엄마의 시각에서 이들이 로크 코린에 도착한 때부터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있었던 일들로 거슬러 올라가고, 늘 대학 시절의 추억을 나누던 친구들의 대화가 드러나지 말아야 할 과거의 어두운 비밀을 향해 흘러간 과정을 따라간다.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만 넘치는 카리스마와 탁월한 여러 가지 능력에 비하면 다른 친구들만큼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미란다, 학교 최고의 ‘여왕벌’을 아내로 맞이한 행운의 주인공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혼 후 실상은 썩 행복하지 못했던 줄리엔의 이야기와 함께 동창들 중 유일하게 싱글로 파티에 참석한 케이티가 한 때는 단짝이었던 미란다와 최근 들어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닉과 동성 커플이 된 미국 출신 보가 과거 심각한 약물중독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공개된다.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서로의 비밀들,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기심에서 시작된 꼬이고 얽힌 관계가 얼큰하게 취한 파티 도중에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드러나고 폭발한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로크 코린 주변 지역에서 최근 연쇄살인이 벌어져 여러 희생자가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범인의 윤곽이 더욱 흐려지는 가운데 소설은 보이지 않는 긴장과 서늘한 배신의 실체를 각기 다른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한다.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짠, 하고 부딪힌 샴페인 잔,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과거의 비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첨예한 라이벌 의식에 빚어낸 잔인한 결과를 차갑고 긴 겨울 밤을 배경으로 멋지게 그려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루시 폴리(Lucy Foley)는 더럼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수년간 출판계에서 소설 편집자로 일하였으며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데뷔작인 『The Book of Lost and Found』는 2015년 베스트셀러 선정작이었다. 총 16개 언어로 번역된 세 권의 역사소설을 펴낸 적이 있으며, 저자의 저널은 ES Magazine, Sunday Times Style, Grazia 등 유명 일간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The Hunting Party』는 그녀의 첫 범죄소설이다.

제목 : THE IMPORTANCE OF FLOATING

가제 : 떠다니는 것들

저자 : Linda Rui Feng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0년 봄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일반/ 역사소설



\* 경매를 앞두고 6-figure pre-empt로 판권 계약이 체결된 데뷔작

\* 2018 레스틀리스 북스(Restless Books) 이민 관련 신작 도서상(PRIZE FOR NEW IMMIGRANT WRITING) 결승 진출작

낮에는 너무 지쳐서 꼭 낮잠을 자야 할 만큼 푹푹 찌는 더위가 온 마을에 덮친 1986년 8월, 주니는 아빠가 보낸 편지를 읽고 큰 충격에 빠진다. 나고 자란 양쯔강 남쪽의 시골 마을을 떠나 저 멀리 미국으로 간 아빠와 엄마는 꼬박꼬박 편지를 써서 보냈고 할아버지가 우체국에 가서 파란색 빨간색 테두리부터 마음 설레게 하는 그 편지를 받을 때면 주니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는 꼭 다시 만나서 세 식구가 함께 살자는 인사말이 더욱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주니의 열두 살 생일에 엄마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올 예정이며, 주니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다. 먼저 미국으로 간 아빠도, 몇 년 후 이 집에 주니를 맡기고 흐느끼며 뒤늦게 그 뒤를 따라간 엄마도 주니에게는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존재가 분명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열두 살이 되려면 아직 1년 반이 남았지만, 주니는 벌써부터 걱정이었다. 아직 어린 주니로선 아빠의 이 결정 뒤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무게가 실려 있는지 알지 못했다. 가난하고 불편하지만 평화롭고 한적한 이 마을을 떠나 낯선 나라에 간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주니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이민자 출신인 작가는 주니와 주니의 아빠 모모, 엄마 카시아를 통해 문화혁명으로 격동하던 시기, 중국의 분위기와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나라에 첫 발을 들인 이민자들의 삶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모모와 카시아가 고향 마을에서 각각 나고 자란 이야기,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족이 된 후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억누르고 살았던 깊은 상처가 생경한 나라에서 부풀어 올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시 피어난 과정을 조명한 특별한 소설이다.

모모가 태어났을 때 두세 살을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까만 머리 카락이 수북하던 다른 아기들과 달리 옅은 색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하던 아들에게, 할아버지는 일부러 이름을 고심해서 지어주지 않았다. 곧 곁을 떠날 것 같아서 되도록 정을 붙이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식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끝까지 놓지 못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몸에 좋다는 귀한 음식을 힘들게 구해다가 모모에게만 몰래 먹이며 건강해지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극진한 보살핌에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꼬마는 어느 날, 마치 다시 살아 보기로 작정한

것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대충 지은 모모라는 이름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란 모모는 물리학을 사랑하는 과학도로 자라 혼란스러운 모국을 떠나 더 많은 기회와 자유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다. 카시아와 결혼을 하고 주니를 낳은 후 그 꿈이 더욱 확고해진 모모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낯선 땅에 먼저 가서 정착한 후 두 사람을 데려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방 이루어질 것 같던 계획은 뜻밖의 사건들로 점점 늦춰지고, 그 사이 딸을 떼어 놓고 뒤따라 온 카시아와의 관계도 중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서로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던 상처들, 서러움과 아쉬움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제멋대로 튀어나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할지 모르는 사이 카시아는 다른 사랑을 찾고 모모는 절망하지만 두고 온 딸아이와의 약속만은 지켜야 한다고 굳게 마음 먹는다. 두 노인에게 두고 온 딸 주니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주니는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어서 점점 기력이 빠질 두 노인이 계속 자라날 주니를 언제까지나 업어 보살필 수는 없었다. 모모는 세 식구가 예전처럼 다시 모여 살아보자고,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는 마음으로 카시아에게 힘겹게 도움을 청한다. 주니의 손에 도착한, 열두 살이 되면 데려가겠다는 편지는 아주 짧았지만, 두 사람이 헤맨 시간과 눈물,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다.

깜깜한 밤이 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주니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누워 한동안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곤 했다. 주니는 늘 잠든 척했지만, 자신이 깨어 있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바로 그 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부터는 밤마다 두 분이 평소와 영 다른 음성으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다렸다. 아기가 죽으면 뺏가루만 남겨서 통에 담아 둔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됐다. 카시아에게 ‘그’ 아이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자기 아이를 통에 담긴 뼈로만 보게 한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고 할머니가 한탄했기 때문이다. 주니는 알지 못했지만 아직 모모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태어난 주니의 동생을 두고 한 말이었다.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았을 때 불안간 진통을 느낀 카시아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뱃속에서 잘 자라던 아기는 탯줄에 목이 감겨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비통에 잠긴 가족들에게 산모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으니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바깥 세상에 나와 눈 한번 떠 보지 못하고 죽은 아기의 마지막은 모모와 주니의 할아버지가 함께 했다. 할머니는 카시아도 아기를 봐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지만, 절대 안정이라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모는 결국 조그맣고 시퍼렇게 변한 아들을 카시아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배 한쪽에 남은 선명한 수술 자국보다 카시아의 마음에 더욱 선명하게 남은 그 날의 상처가 훗날 강렬한 갈등의 씨앗이 될 줄 알았다면, 모모도 다른 선택을 했을까? 시대의 혼란, 이민자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서, 약속을 이야기하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린다 루이 펑(Linda Rui Feng)은 토론토 대학교에 중국 문화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이민 1세대이기도 한 펑은 토론토 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글을 써 왔으며 「산타모니카 리뷰」, 「살라맨더」, 「워싱턴 스퀘어 리뷰」 등에 작품이 실린 경력이 있다.

제목 : WHAT HAVE YOU DONE

가제 : 형과 나

저자 : Matthew Farrell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소설 / 스릴러



- \* 워싱턴 포스트, 아마존 베스트셀러 / 2018년 9월 공개 후 전자책, 종이책 합산 40만 부 이상 판매
- \* “가족간의 유대에 도사린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포착한 흡입력 있는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서스펜스가 가득하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ave Me』의 작가 리사 스코토라인
- \* “엄청난 속도감과 반전 있는 줄거리, 놀라운 결말까지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스릴러”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에릭 릭스타드(Eric Rickstad)

가장 의지했던 존재가 가차 없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덤비는 지옥 같은 상황을 함께 견뎌낸 형제가 무사히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경찰이 된다. 필라델피아에서 일년에 족히 300건 이상 벌어지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형은 형사로, 동생은 법의학 전문가로 숨은 범인을 찾아내며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만, 작은 호텔 방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굳건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희생자가 동생 리암이 아내 몰래 2년 넘게 만났던 연인, 케리로 밝혀진 것이다. 끔찍한 살인 현장을 수도 없이 봤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구역질이 치밀던 그곳에 사냥당한 작은 동물처럼 전선에 묶여 죽임을 당한 여성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밤을 보내고, 어루만지던 케리라는 사실을 알아챈 리암은 곧바로 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것이 더 끔찍한 사건과 오랜 시간 덮여 있던 무서운 진실의 첫 실마리가 될 줄, 리암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27년 전, 리암이 여섯 살일 때 엄마는 두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 엄마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11개월이 지난 때였다. 그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는 서서히 미쳐갔다. 집안일은커녕 하루 종일 울거나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어린 리암과 형 션은 겨우 하루하루를 견디며 학교에 다녔지만 엄마는 밥 한끼 제대로 차려주지도 않았고 급기야 머리를 뺨뺨 밀더니 절대 잊지 못할 그 날, 학교에서 돌아온 리암을 우악스럽게 붙들고 양손을 등 뒤로 획 돌려 묶어버렸다. 그대로 엄마 손에 이끌려 욕실로 간 리암은 물이 가득한 욕조에 내던져졌다. 엄마는 리암을 위에서 내리누르며, 미소 띤 얼굴로 이제 아빠 곁에 가자고, 다시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만 주문처럼 중얼댔다. 서른이 훌쩍 넘어 가정을 꾸리고 번듯한 직장에서 평범하게 살면서도 리암은 그 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나마 형이 바로 곁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에 그나마 두 번 다시 욕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트라우마만 남고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고 리암은 굳게 믿었다. 케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된 뒤에야, 리암은 지금까지 생

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거짓에 가린 허상이었는지 알게 된다.

동료와 다른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쫓다가 동생의 연락을 받은 셀은 황급히 케리가 발견된 호텔로 향한다. 리암은 케리와 이미 3개월 전에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몇 번 전화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셀은 동생이 용의선상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여 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케리가 살해당한 날, 리암이 동료들과 술을 잔뜩 퍼 마신 사실 외에는 방새도록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악몽에 놀라 고함을 치면서 잠을 깬 때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고, 놀랍게도 평소 발도 들이지 못하던 옥조 안에서 깬다. 리암의 아내 바네사는 새벽에 거실 소파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자는 걸 봤다고 했지만 리암은 몇 시에 어떻게 집에 왔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휴대전화에 케리의 음성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둘이 연락을 안 한지 수 개월 짜인데, ‘약속장소에 왔는데 자기가 안 보여’라고 말하는 음성은 케리가 분명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만나자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케리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급기야 사건 현장에서 리암의 지문에 이어 DNA까지 발견되자 셀도 동생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케리를 그렇게 난도질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가리키는 솔한 증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리암은 법의학자로서, 온갖 살인사건을 해결해온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더 놀라운 결론에 다다른다. 어쩌면 형이,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었던 형 셀이 케리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서로를 향한 의심은 케리가 발견된 호텔 주인이 살해당하고 케리가 죽기 전 리암의 아내 바네사와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골이 깊어간다.

바네사와 리암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문제로 뼈격대던 부부의 관계는 바네사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악화됐고, 케리는 그 시기에 마음 둘 곳이 없어 힘들어하던 리암을 위로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그러나 차마 가정을 깨면서까지 내연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리암은 케리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애원하는 케리를 애써 무시했다. 그런데 죽기 전 케리의 행적을 추적한 리암은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을 알게 된다. 형이 케리와 각별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바네사와도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난다. 리암에게 부모나 다름없는 형이 동생의 연인, 아내를 연이어, 심지어 동시에 만나는 일이 가능할까? 억울하다는 리암의 호소에 함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던 동료 형사들도 이상한 사실을 알아낸다. 수 년 전부터 미국 곳곳에서 젊은 여성이 전선에 묶여 머리카락이 잘리고 배가 난도질 당한 채 죽임을 당하는 연쇄 살인이 여러 건 이어졌는데, 케리를 죽인 범인이 사용한 수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다. 셀과 바네사, 케리는 어떤 관계였을까?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남긴 더 끔찍한 상처, 괴물이 되어버린 한 인간의 놀라운 이중 생활을 그린 인상적인 스릴러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매튜 파렐(Matthew Farrell)은 세계적인 판타지, 호러 소설 잡지에 단편이 수록되었으며 할리우드에서 각본가로도 활동했다.

## NON-FICTION

제목: NEUROGASTRONOMY

가제: 신경미식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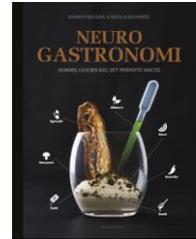
저자: Rasmush Bredahl & Nikolai Buchardt

출판사: FADL's Forlag

발행일: 2016년 4월 11일

분량: 264 페이지

장르: 건강, 요리



- \* 음식에서 얻는 만족감을 과학을 토대로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 '신경미식학'을 소수의 학문에서 일상적인 지식으로 끄집어내어 활용하는 법을 소개한 안내서
- \* 과연 누구나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맛, 혹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데 음식의 맛이 인간이 느끼는 만족스러운 기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만족감'이라는 감정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고 음식으로 얻는 만족감은 대부분 음식이 채워지는 위장의 반응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반응이 뇌에 특정한 신호를 보내서 더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느끼는 맛, 질감 등 감각 정보도 뇌에 신호를 보내서 그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단순히 '맛있다'고 느끼는 감각을 이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완벽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탐구해온 사람들이 있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태어나서 자란 문화도 음식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큰 영향을 주는데, 과연 누구나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맛, 혹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입맛과 식습관, 문화적인 배경을 비롯해서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요소를 감안한, 완벽한 식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10여 년 전부터 요리사는 물론이고 과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 주제에는 '신경미식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덴마크와 벨기에에서 25년 넘게 활동해온 전문 요리사와 저널리스트이자 아마추어 요리사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소수의 관심사로 여겨지는 이 획기적인 영역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풀어서 소개한다. 과학자 찰스 스펜스(Charles Spence)와 영국의 유명 요리사 헤스턴 블루멘탈(Heston Blumenthal)이 개척한 신경미식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왜 어떤 음식은 특히 입에 착착 붙는다는 느낌이 절로 들 만큼 맛이 좋고 자꾸만 당기는지, 과학적인 탐구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과 이 특별한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는 감각을 무엇이 만들어내고 자극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에 요리사, 식품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현상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하려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이상 이어진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신경미식학의 새로운 지식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적인 분석이 웬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연구마다 결과가 달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신경미식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두 저자는 이런 한계를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진 지식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이 책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입에 음식이 들어간 순간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도구를 통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맛과 음식에 관한 통념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저자는 신경미식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을 만들려는 시도가 번듯한 고급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샌드위치, 핫도그 같은 간단한 간식부터 특별한 날 마음먹고 차려내는 식사까지 모두 신경미식학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감을 모두 충족시키는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 독특한 레시피가 모두 담겨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 <목차>

신경미식학 - 무엇이 완벽한 식사일까?

사바나에서의 하루

1부. 감각 - 감각과 다섯 가지 기본적인 맛

2부. 행동 심리학,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들

- 경험, 기억, 주변환경

- 밥상 차리기! 접시, 식기, 컵, 그 아래 깔린 테이블보까지

- 잘못된 토마토와 기적 같은 베리 - 보기와는 다른 맛이 난다면

3부. 자극과 영양, 그리고 미래 -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신경미식학

4부. 레시피 -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일상 요리부터 5가지 요리로 구성된 저녁 코스요리까지

- 소개

- 식사 해부

- 전통적인 일상 메뉴

- 도구상자

- 샌드위치, 점심 메뉴 (이하 생략, 총 11개 소챗터로 구성)

#### <저자 소개>

라스무스 브레달(Rasmus Bredahl)은 벨기에와 덴마크에서 25년간 요리사로 일했다. 신경미식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식품업계에 관련 지식을 전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다.

니콜라이 부카르츠(Nikolaj Buchardt)는 저널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커뮤니케이션 전략가다. 25년 넘게 관련 업계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음식에 관심이 많은 아마추어 요리사이기도 하다.

제목 : THINKING ON MY FEET

가제 : 걷고 생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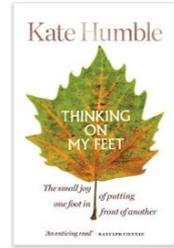
저자 : Kate Humble

출판사: Aster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304쪽

장르 : 회고록 / 여행기



\* 에드워드 스탠포드 여행서 어워드(Edward Stanford Travel Writing Award), ‘올해의 여행 회고록’ 부문 결승 진출작

\* “글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독자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만든다. 단어마다 햇살과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다” - 작가 베네딕트 알렌(Benedict Allen)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이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그 효과를 실감한다. 현대인이 끼고 사는 휴대전화에도 만보기가 달린 제품이 수두룩하고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로도 사람들이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미처 다 하지 못해 밀린 일들까지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산책은 왠지 부담스럽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일처럼 느껴진다. 영국에서 방송인이자 작가로 잘 알려진 저자는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생생하게 입증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밖에 나가 무조건 걷고 또 걷는 것이 일상이라는 저자는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두 다리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걸을 수 있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일년 동안 실천해온 과정을 계절별로 들려준다. 쉬는 날이나 시간이 여유로울 때만 걷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서도, 몇 주째 업무에 찌들려 지낼 때도 잠깐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발바닥으로 땅을 딛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분 전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저자가 찬찬히 기록한 걷기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디션이나 날씨, 시간에 쫓기는 바쁜 일상이 더 이상 매일 걸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일년 간 곳곳에서 걷고 뒀던 저자의 기록에는 장소나 시간 같은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그 특정한 날, 그 계절에 걸으면서 느끼고, 깨닫고, 생각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 발로 걸어갈 때만 포착하고 감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취재 차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이 마주보고 있는 낮선 도시에 머물 때는 동튼 직후 30분 정도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목격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죽은 고양이를 집안에서 들고 나오는 아저씨, 작고 허름한 경찰서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오렌지 꽃, 새로운 가구로 탄생할 나무를 하나하나 골라

꺼내 놓는 목수, 거대한 밧줄을 머리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전통 간식을 파는 노점에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인들까지, 걷지 않았다면 놓쳤을 풍경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눈길을 던지다 보면 머리와 마음을 짓누르던 고민거리나 풀리지 않던 생각들이 가벼워진다. 저자는 매일 나가서 걷는 시간이 조용히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 못지 않게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특별한 목적 없이, 자진해서 나가 걷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스럽게 걷는 행위 자체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자신의 걷기 기록과 함께 인간의 뇌가 걸을 때 나타내는 반응과 걸기에서 비롯되는 창의적인 에너지와 즐거움, 치유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함께 소개한다. 더불어 걸으면서 작품의 영감을 찾는 화가와 악물 등에 중독된 사람들이 등산으로 다시 건강한 삶을 찾도록 돕는 사람들, 암 판정을 받고 웨일즈에 있는 길을 전부 다 걸어 본 여성 등 걷기를 통해 마법 같은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도 들려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열린 나가서 걷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다.

#### <목차>

서문

새해

봄

여름 탐험

가을

한 해의 마지막

#### <저자 소개>

케이트 험블(Kate Humble)은 영국의 TV 방송 진행자이자 농부, 작가, 시민운동가다. 'Animal Park', 'Springwatch & Autumnwatch', 'Lambing Live' 등의 진행을 맡았다.

제목 : THE EUROPE ILLUSION

가제 : 유럽의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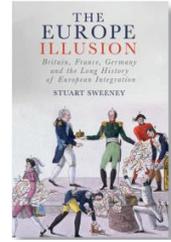
저자 : Stuart Sweeney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1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역사



- \* “영국이 따로 떨어져 나온 현 상황의 위기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 BBC 뉴스 편집자 개빈 휴잇(Gavin Hewitt)
- \* “영국이 입지를 재정 의하고 유럽, 그리고 더 넓은 세계와의 향후 관계를 정하기 위해 고투를 벌이는 현 시점에 꼭 맞게, 영국의 운명이 프랑스, 독일의 운명과 언제부터 연결되어 있었는지 상기시키는 책” -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 피터 윌슨(Peter Wilson)

2016년 6월, 영국은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 경제공동체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되고 5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으로 탈퇴국이 생긴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의 서명으로 체결된 로마조약은 영국까지 28개국이 동참하고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조직이 형성되는 기틀이 되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국의 EU 탈퇴 소식을 두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포퓰리즘적 일탈 행위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또 한 편에서는 ‘유럽회의론’을 지지하는 중산층과 이민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빈곤층, 그리고 구 세대에 속하는 노동계급이 이례적으로 결집하여 EU 탈퇴를 이끈 것으로 볼 때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견해도 나왔다. 영국이 EU에 동참한 1973년부터 초국가적 통합에 반대하는, 조심스러운 통합주의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1992년에 EU 정치, 경제, 통화의 통합을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까지 체결되자 이러한 반발도 점차 거세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럽사를 연구해온 교수이자 학자인 저자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국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왔는지 짚어보면 후자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유럽의 지도가 크게 바뀐 이래로 영국이 당시 프로이센 왕국이던 독일과 맺은 관계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현재까지 유럽 대륙에서 형성된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인 연결고리가 이 3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를 보다 큰 관점으로 해석하면, 유럽 통합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도 평가되는 브렉시트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며, 동시에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영국의 ‘유럽회의론’이 부분적으로는 엘리트 정치인과 공무원, 저널리스트, 학계 인사들, 산업계에서 꾸준히 불거졌다는 사실과 함께, 유럽의 핵심 국가가 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극명히 다른 역사를 통해 통합은 반드시 초국가적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며 영국의 특수주의, 더 나아가서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지키는 방

식으로도 이를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한다. 3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다른 것을 추구했고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유럽 통합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내포된 복잡한 요소를 모두 놓치고 브렉시트도 포퓰리즘이나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세 국가의 역사를 따로 또 같이 조망함으로써 유럽의 통합 혹은 분열에 얽힌 동적 관계를 분석하고, 무엇이 영국과 유럽의 상호 연계성을 키우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과거 사례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본다. 전쟁과 혁명, 법과 제도의 변화, 산업혁명, 경제적인 주기, 제국의 탄생과 멸망, 식민지 건설과 탈식민지화, 이민, 종교적 분립 등 어느 한 가지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 속에서 세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추적하고 새로운 유럽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역사서다.

#### <목차>

머리말: 브렉시트, 포퓰리즘적 일탈일까 서서히 끓어오른 반란일까?

1. 신성한 로마제국부터 독일 제국까지: 전쟁, 정치, 외교 1648-1864
2. 비스마르크부터 브렉시트까지: 전쟁, 정치, 외교 1864-2018
3. 중상주의에서 코브덴 슈발리 조약으로: 유럽통합의 경제학 1648-1871
4. 비스마르크가 내건 유럽경제·화폐통합(EMU)의 원칙: 유럽통합의 경제학 1871-2018
5. 제국의 식민지 건설부터 보어인, 의화단 사건까지: 제국, 이민, 그리고 유럽 1648-1904
6. 우호조약부터 확장까지: 제국, 이민, 그리고 유럽 1902-2018
7. 종교와 ‘나머지’ 유럽 1648-2018

결론

####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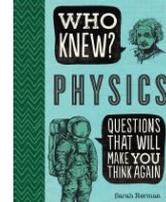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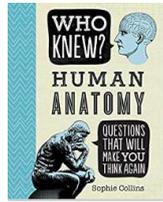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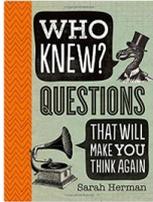
스튜어트 스위니(Stuart Sweeney)는 옥스포드 대학교 유럽역사센터 소속 학자로 동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Financing India's Imperial Railways』가 있다.

제목 : WHO KNEW? Series

가제 : 누가 알았을까? 시리즈

출판사: Portable Press

장르 : 자기계발



## 1. 누가 알았을까? 일반 상식(Who Knew? General Knowledge) by Sarah Herman

발행일: 2017년 9월 1일 / 256쪽

코끼리 귀는 왜 그렇게 클까? 영어에서 둘 다 안개를 의미하는 fog와 mist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럽에서 북미 대륙까지 이동한 지렁이는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알쏭달쏭한 이런 질문에 척척 대답할 수 있다면 가장 똑똑한 초대 손님으로, 잠깐 쉬다가 만난 아주 영리한 동료라는 소리를 듣게 되리라. 살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125개 이상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날씨와 기후, 건강과 의학, 예술과 건축, 동물과 식물, 고대역사, 식품과 음료 등 총 열두 가지 주제를 각 장에서 다룬다. 퀴즈라면 무조건 대환영인 사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 상식을 넓히고픈 사람들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중세시대의 전염병 이야기, 로마 건축물에 숨어 있는 법칙,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식생활 전통, 대통령을 노린 갖가지 암살 시도들, 제임스 본드의 특수 안경에 심어진 기능까지 뇌세포를 기분 좋게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믿거나 말거나’ 못지 않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안겨줄 신기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각 장의 마지막은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질문이 제시되어 읽은 내용을 그저 재미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확실한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

**저자 소개:** 새라 허먼(Sarah Herman)은 토탈 필름(Total Film), 스타워즈 인사이드(Star Wars Insider)에서 기고가로 활동해 왔으며 『Classic Guide to Famous Assassinations』, 『Does Anything Eat S\*\*t?』 등의 저서를 썼다. 현재 「랩 매거진(The Lab Magazine)」 편집자를 맡고 있다.

## 2. 누가 알았을까? 인체 해부(Who Knew? Human Anatomy) by Sophie Collins

발행일: 2019년 7월 9일 / 256쪽

우리 몸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에, 다치거나 병이 나지 않는 이상 신비로운 기능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기 쉽다. 이 책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인체의 놀라운 기능과 특징을 100가지 이

상의 질문과 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현대인은 왜 500년 전에 살았던 인류보다 몸집이 더 커졌을까? 몸에 정말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을까(자연발화)? 몸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몇 가지고 무엇일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원하는 쪽으로 조작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장치인 인간의 몸에 관한 이 같은 매혹적인 질문부터 태어난 월이 지능지수에 영향을 주는지, 저녁에 잤 키보다 아침에 잤 키가 정말 더 큰지 같은 흥미로운 속설의 진실을 밝혀줄 질문들이 제시된다. 몸의 안팎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일들을 이 질문들을 통해 확인하다 보면, 이 시리즈의 제목인 ‘대체 누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것이다.

**저자 소개:** 소피 콜린스(Sophie Collins)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출판계에서 일한 후 현재 프리랜서 작가, 편집자로 활동 중이다.

### 3. 누가 알았을까? 역사 속 여성들(Who Knew? Women) in History by Sarah Herman

**발행일: 2019년 7월 9일 / 256쪽**

세계 여러 나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등장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 여성들의 활약을 정리한 책으로,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여성들에 관한 100여 건의 짙막한 글로 구성된다. 러시아 제국의 여제였던 예카테리나 2세가 남긴 비범한 업적, ‘원자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부터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나라와 그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여성들의 이야기 등 정치, 페미니즘, 새로운 변화를 개척한 선구자, 사상가, 리더, 종교와 문화 분야, 전사, 범죄와 처벌, 예술과 문학,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역사를 새로 쓴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자 소개:** 1권 저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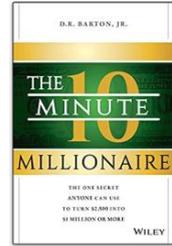
### 4. 누가 알았을까? 물리학 (Who Knew? Physics) by James Less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 256쪽**

바쁜 현대인들은 우주는커녕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고 그 사실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잊고 살지만, 개기일식, 달 착륙, 혜성 충돌 같은 이야기를 가끔 접할 때마다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물리학과 천문학에 관한 호기심을 채워줄 질문들로 구성된 이 책은 하늘과 우주를 나누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나비가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 우주의 흥미로운 기능을 입증하는 이야기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들려준다. 시리즈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장 마지막에는 배운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가 함께 제공된다.

**저자 소개:** 제임스 리스(James Lees)는 요크 대학에서 나노 물질의 열 전도를 연구하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Physics in 50 Milestone Moments』가 있다. 영국 전역의 다양한 페스티벌과 이벤트에서 물리에 관한 다양한 워크샵과 강연을 개최하였다.

제목 : THE 10-MINUTE MILLIONAIRE  
가제 : 하루 10분 투자로 백만장자 되는 법  
저자 : D.R. Barton, Jr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2월 13일  
분량 : 256쪽  
장르 : 경제(투자)



**\*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해 왔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런 시스템을 향해 크게 진일보했다.” – 차이킨 애널리틱스 CEO, 마크 차이킨(Marc Chaikin)**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각종 강의나 책들은 오래 전부터 넘쳐나지만 결국 비슷한 방향으로 귀결된다. 본업을 거의 그만둬야 할 정도로 막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자꾸만 얕아지는 월급 봉투를 보충해줄 추가 수익을 꿈꾸며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주식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그렇게 매진하면 주식으로 남은 노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 뉴스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CD 금리며 단기투자신탁, 투자채권의 가치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락했고 전문 투자가들도 수익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투자 분석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자는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노후 걱정 없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솔직한 제안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투자 비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했을 정도로 지극히 단순하지만 소액의 자본금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규모로 불리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투자에 있어서 피해야 할 부분들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담아 낸 책**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끊임없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오르락내리락 변화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저자는 그와 같은 변화로 인해 특정 회사의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급락한 때를 노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불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야말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되 이 중요한 기회를 날리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야 한다. 저자는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기본 원칙만 익히면 오로지 주가 변동만 들여다보며 폐인처럼 살지 않아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도 힘들었던 정교하고 까다로운 거래전략을 일반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이처럼 투자의 전반적인 원칙을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로 주식거래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을 기준

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각 투자 건마다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간단한 산술 계산으로 안전하게 정하는 법, 거래 건마다 직접 작성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투자를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워크시트 등 활용도 높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잘못될 경우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비상대책 계획도 제시된다. 투자 단계와 규모별 목표 수립과 주가 변동의 추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전략과 거래 전략을 실제 투자자들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른 사람들의 투자 방식에서 저자가 찾아낸 공통분모를 찾아 절대 이를 수 없는 꿈이라고들 생각하는 백만장자의 꿈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투자 안내서다.

### <목차>

#### 1부. 백만장자처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부자가 되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머리말. 헉이 멈춘 곳

1장. 전 세계 억만장자들로부터 배운 중요한 비밀

2장. 투자 - 궁극의 익스트림 스포츠

2장 보너스. 백만장자들의 커닝페이퍼

3장. “수익의 통치자”를 통해 우위를 점하는 법

#### 2부. 양극단 찾기, 거래의 틀 만들기, 수익 찾기

4장. 거래시스템 운영법

4장 보너스. 번듯한 거래시스템의 다섯 가지 비밀

5장. 양극단에 놓인 주식 찾기

6장. 거래의 틀 만들기

7장. 수익 찾기

#### 3부. 모두 하나로 합쳐라

8장. 태어나 처음 100만 달러를 만드는 첫걸음

맺음말. 발전해야 하는 건 바로 나 자신

### <저자 소개>

D.R. 바튼 주니어(D.R. Barton, Jr)는 디렉셔널 리서치 앤 트레이딩 헤지펀드 그룹(Directional Research and Trading Hedge Fund Group)의 공동 창립자로 15년째 COO를 맡고 있다. 투자 관련 저술가, 강연자, 코치로도 활동해 왔다. 폭스 비즈니스, CNBC 등에 투자 분석가로 다수 출연했다. 저서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afe Strategies for Financial Freedom』이 있다.

제목 : GETTING REAL ABOUT GETTING OLDER

가제 : 노년기 제대로 알고 준비하라

저자 : Linda Stroh, Karen Brees

출판사: Sourcebooks

발행일: 2018년 11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가이드” – 「라이브러리 저널」**

**\* “그냥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한 유익한 조언이 많이 담긴, 술술 읽히는 잘 쓴 책” – UCSF 임상의학 교수, Neal S. 번바움(Neal S. Birnbaum)**

인생은 단계별로 이뤄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흘러간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를 사귀고 무사히 졸업하는 것, 학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일자리를 찾는 것,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 등 개개인마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르지만 대다수가 살면서 이루려고 하는 공통적인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이’다. 10대에 해야 할 일, 20대와 30대에 해야 할 일들이 바뀌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취해야 하는 일, 혹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더 나아가 70대, 80대가 되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는 사람도 나이 들면 구체적인 목표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노년기가 되면 꼭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이 없을까? 젊어서 그런 일들을 하느라 고생했으니 그냥 ‘쉬는 것’이 최선일까? 뭘 하면서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것일까? 젊은이들이 쉽게 생각하듯, 노인들은 체력도 약하고 무슨 일에도 큰 의욕이 없을까?

**\*100세 시대에 맞추어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책**

69세, 70세가 되면서 자신들이 빼도 박도 못할 ‘노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는 두 저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두리몽실한 시기, 대충 지나가는 시기로 여겨지는 노년기를 이 책에서 철저히 다시 분석한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현대사회에서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머물러 있는 노인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갈까? 노화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은 이미 학계에 넘쳐나는 만큼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생겨난 감정, 정신적인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두 저자는 65세 이상 노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해 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아정체성의 변화, 사랑과 상실을 대하는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얻는 감정, 건강과 신체적 변화에 관한 생각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응답자들의 진솔하고 거리낌 없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스스로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화는 분명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나이가 되어 이토록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결과 두 저자는 노인이 되는 건 절대 두렵거나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

라고 단언한다. 알고 보면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해도 될 만큼 가장 큰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며, 더욱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두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드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다양한 인생의 경로를 지나 노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 속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지혜가 가득하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젊은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처럼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야 느낄 수 있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책이다.

### <목차>

머리말.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

1.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 보고 있지 않다
3. 나는 그대로일까?
4. 성별 전쟁
5. 부모와 성인된 자녀의 관계: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6. 건강, 체력, 자아상: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운가?
7. 관계 -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진다
8. 믿음, 신앙, 영성: 보이지 않는 지원군
9. 헤어짐: 작별인사만큼 슬픈 말이 있을까
10. 실수하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맺음말. 끝났습니다

### <저자 소개>

린다 스트로(Linda Stroh)는 시카고 로올라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25년 여 동안 교수로 재직한 후 현재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TRUST RULES』 등 여섯 권의 책을 썼다.

카렌 브리스(Karen Brees)는 성인교육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THE EVERYTHING HEALTH GUIDE TO DEPRESSION』 등 여섯 권의 논픽션과 두 편의 소설을 썼다.